중앙일보 | The Butter 공익섹션
joongang.co.kr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Build the world better

기부자들이 변했다 "인건비 충분히 쓰세요!"

필란트로피 가이드 인건비와 간접비

"저는 스타트업 창업과 경영을 통해 몇 가지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인재의 중요성이에요. 조직이 성과를 내고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합니다. 영리뿐 아니라 비영리에도 해당하는 얘기지요."

김강석 블루홀(현 크래프톤) 공동창업자는 지난 1일 더버터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랑의열매에 10억원을 기부한 데 이어 비영리 인재와 조직의 성장을 지원하는 'IP1 기금'에 36억원을 출연한 고액기부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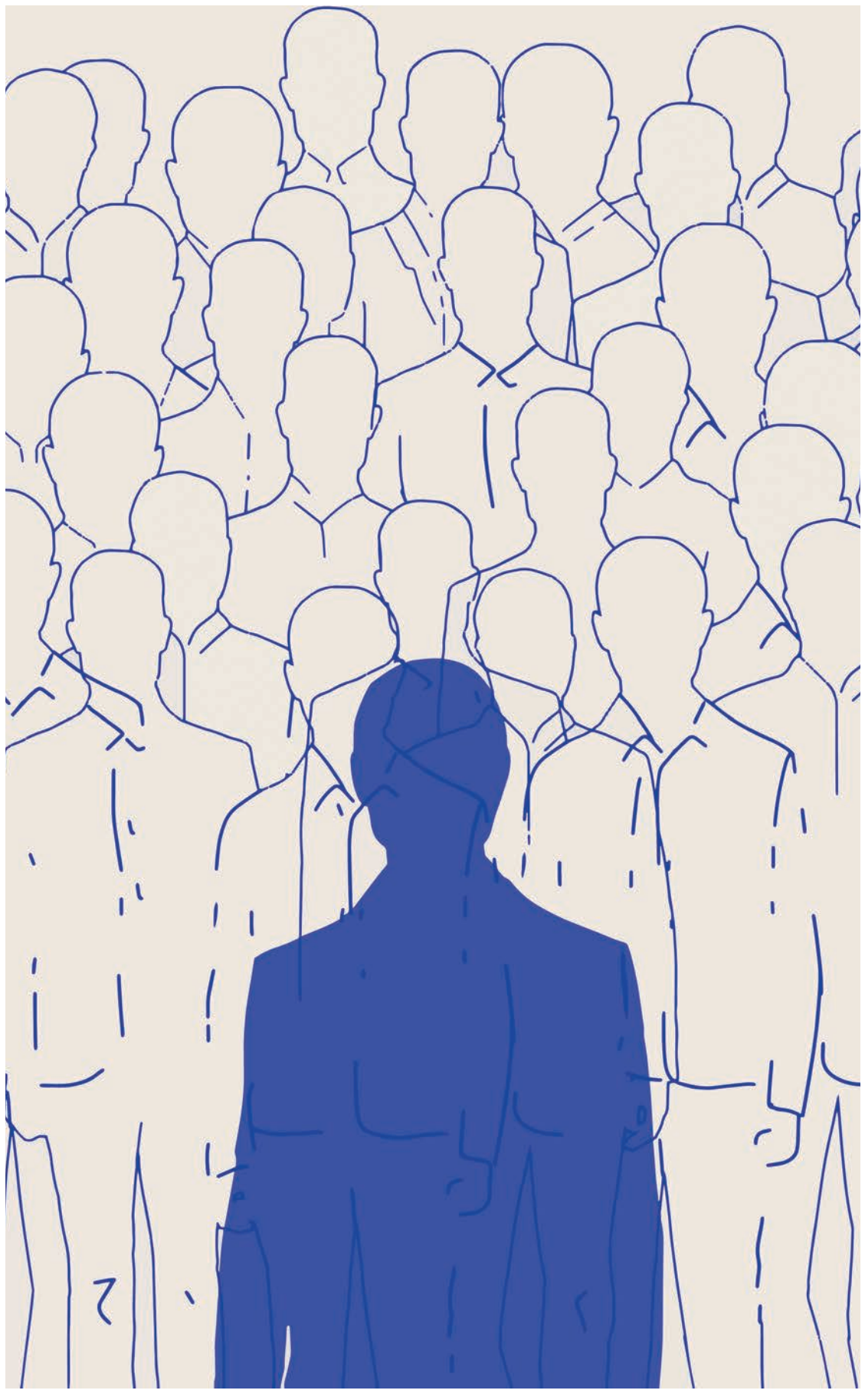
비영리단체의 인건비에 대한 기부자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 비영리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이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고, 숙련된 인력을 고용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과거 일부 기부자들이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자원봉사자'로 오해했던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다.

 # 인건비라는 '그물'

종종 이렇게 말하는 기부자들이 있다. "내가 낸 기부금이 사업비로만 100% 쓰이면 좋겠고 인건비로는 쓰이지 않았으면 한다." 인건비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 비용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건비는 사업의 부수적인 비용이 아니다. 공익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다.

인건비는 비영리 예산의 전 영역에 그물처럼 펼쳐져 있다. 덜어내서 생각할 수도 떼어낼 수도 없다. 비영리의 예산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사업비용을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는데, 세 카테고리 안에 모두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아동을 돕기 위해 현지에 가서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월급은 '사업수행비용'에 속하는 인건비다. 현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진행하는 사람에게 주는 인건비도 '사업수행비용'로 처리된다. 모금 전략을 짜거나 실행하는 모금부서 직원들에게 주는 인건비는 '모금비용'에 해당한다. 단체의 예산을 관리하고 계획을 세우는 재무팀, 인사나 채용을 주관하는 인사팀 직원에게 주는 인건비는 '일반관리비용'으로 들어간다.



정호윤 월드비전 경영본부장은 "비영리의 모든 사업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이뤄진다"며 "내부의 다양한 직원들, 외부의 파트너들, 이들이 각자 하는 여러 일이 모여서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업으로 디자인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준영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비영리 직원들을 '비용'으로 보지말고 단체의 '자산'으로 봐야한다"면서 "비영리사업의 성과가 사람의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면 직원들에게 쓰는 돈은 '지출'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간접비 깎기

앞에서 설명한 비영리의 세 가지 예산 가운데 사업수행비용을 제외한 두 가지 항목, 즉 일반관리비용과 모금비용을 간접비(오버헤드·overhead)라고 부른다. 사업 현장에 직접 쓰이는 돈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다.

우리나라의 간접비 비율은 대체로 예산의 10~30% 수준에서 정해진다. 기부자가 간접비 비율을 정해주거나 통제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비영리단체가 자체적으로 예산 구조를 짜고 간접비 수준을 정한 뒤 기부자에게 근거를 설명한다.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진다. 기부자는 간접비를 깎으려고 하고 비영리는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일이 일상처럼 벌어진다. 간접비는 나쁜 돈일까?

간접비의 한 축을 차지하는 '일반관리비용'은 단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돈이다. 행정인력 비용,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사무용품, 시스템 관리비 등을 포함한다. 단체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필수적인 비용이다.

'모금비용'은 사업에 필요한 기부금을 유치하는 데 드는 경비다. 모금을 기획하거나 실행하고, 후원자와 기부자를 관리하는 데 쓰인다.

만약 간접비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반관리비용이 부족하면 관리 기능이 부실해지고 사고의 위험성이 커진다. 기부금 사용도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모금비용이 부족하면 단체의 자생력과 독립성이 약해져 재정적으로 불안해진다.

김시원 더버터 기자

» 3면 '필란트로피'로 계속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기부

모금업계에서 1000만원은 상징적인 금액이다. 소액기부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큰돈을 기부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모금기관에서도 누적 1000만원을 넘긴 후원자를 잠재 고액기부자로 분류한다.

'천만클럽'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굿네이버스의 추천으로 특별 회원 모임인 '더네이버스클럽' 가입자를 차례로 만났다. 더네이버스클럽 회원은 론칭 첫해인 2016년 14명으로 출발해 2020년 122명, 올해 10월 기준 278명으로 늘었다.

기부자들 면면을 살펴보면 직장을 다니면서 대출금을 갚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현대중 굿네이버스 대외협력실장은 "정기후원으로 시작했다가 특정 사업에 추가 후원하는 기부자들이 많아졌는데, 감사의 뜻을 표하려 해도 오히려 사양하는 분들이 많다"며 "특별한 무언가를 원하기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부의 가치를 조용히 실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기부로 '새로운 실험'을 제안합니다

박윤수(31)씨는 연구원이다. 월급을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처음 기부를 시작한 건 3년 전. 국내 아동 지원사업에 월 10만원씩 기부했다. 그러다 목돈 1200만원을 기부했다. 목적은 분명했다. 그는 기부금 사용 목적을 학대피해아동들이 머무는 쉼터에서 일하는 종사자 지원으로 콕 짚었다.

"학대피해아동의 보호가 중요한 일인 만큼 지원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최대한 빨리 실험해 보고 싶었어요. 더 늦추면 이미 늦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지난 2021년 시작한 정기후원은 쉼터 종사자 지원 사업으로 이어졌다. 처음엔 1200만원, 추가로 1000만원, 지난해에도 3100만원을 추가 기부했다. 누적 기부액은 5000만원이 넘는다.

그는 적지 않은 기부금을 두고 "내 노력으로 얻는 보상이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다"고 했다. 현재 사회적 위치나 금전적 여유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는 설명이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 3면 '비범한 기부'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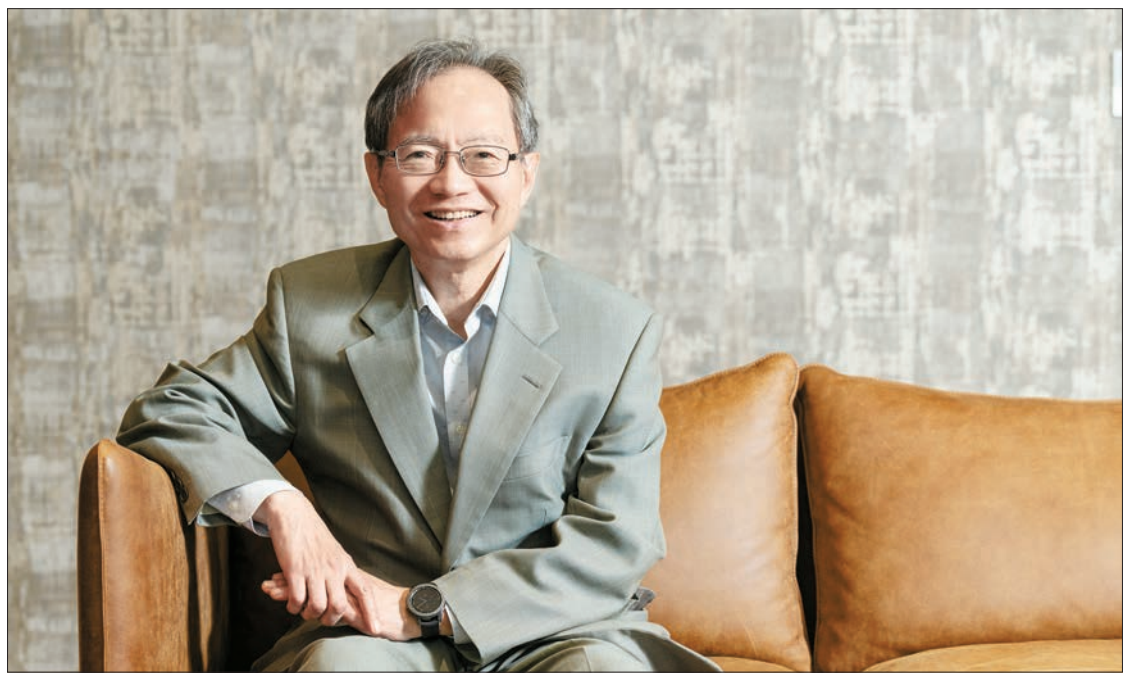
Inside

범죄 이면의 소외된 아이들을 돌보다 C2
글로벌 사회공헌 전문가들이 모인다 C3
자원봉사, 재난을 예방하다 C4
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 10년의 이야기 C5
'크리에이티브'가 세상을 바꾼다 C6
플랫폼 기업에 아동보호 책임묻는 국가들 C7
더버터 스페셜: 혁신을 만나다
정정윤 핸드스피크 대표 C8

중앙일보 공익섹션 더버터(The Butter)
- **취재팀** : 김시원 편집장, 문일요 취재팀장
최지은·박선하 기자
- **공익사업팀** : 이영은 매니저, 박찬주 인턴
- **문의 및 제보** : hello@thebutter.org
02-3789-7861

“범죄로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을”

윤세리 온율 이사장 인터뷰



윤세리 이사장은 “사법체계에서 소외된 피해자 자녀와 가해자 자녀를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재 더버터 기자

“얼떨결에 떠밀려 위원장을 맡게 됐어요. 경험도 없고 능력도 안 된다고 사양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대형 모금 캠페인을 맡고 나니까 제대로 성공시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윤세리(71) 온율 이사장은 변호사 경력 40년의 공정거래와 국제조세 분야 1세대 전문가다. 법무법인 율촌의 공동창립자로 정년 이후엔 공익사단법인 온율에서 공익법 전문가를 키우고 비영리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월드비전의 ‘피니시 더 잡(Finish the Job) 캠페인’ 위원장 자리를 맡았다.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율촌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특정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목표로 위원들이 한데 모였다”며 “기부자 공동체가 형성되면 가늠할 수 없는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를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들을 성공시키려면 새로운 기금을 일으켜야 합니다. 돌파구는 유산기부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부를 축적한 세대들이 유산을 다음 세대에 남기는 시기를 맞았잖아요. 소액기부도 소중하지만, 고액자산가들의 유산기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유산기부요?

“세계 최대 기부 시장인 미국을 보면 유산기부가 대장입니다. 유수의 대학이나 자선단체들에서도 유산기부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됐습니다. 자산가들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 유산기부가 늘어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번 캠페인에 범죄피해아동과 수용자 자녀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월드비전 사업은 해외 사업 위주인데 국내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외국에서는 범죄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거든요. 특히 수용자 자녀는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받지만, 본인 책임은 전혀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피해자 지원도 부족한데, 가해자 가족을 지원해야 하나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는 일도 많지요. 공동체의 문제가 개인에게 투영되고, 여러 형태의 범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배가 고파서 절도하는 사례가 있죠. 낮은 고용률이라는 문제가 빈곤으로 이어지고 절도라는 범죄로 나타나는 겁니다. 범죄만 놓고 보면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더구나 아이들은 피해자 자녀나 수용자 자녀나 사회문제의 피해자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상반된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지원해야 합니까.

“요즘 ‘회복적 사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존의 민형사법 체계에서는 ‘응보적 사법’이 기본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상반된 양자 관계로 보고, 처벌하든지 변상하든지 결론 냅니다. 그런데 응보적 사법으로는 완전한 문제 해결이 되질 않아요. 피해 아동을 보듬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빠져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용자 자녀의 경우에도 부모가 범죄로 인해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치유적 사법’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치유적 사법은 뭔가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피해자 치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처벌을 통해 사회 정의를 세우고 다른 범죄를 막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범죄로 인한 모든 피해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나요.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별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요. 새로 법을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행법 안에서도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법조도 있고, 수사기관도 있고, 교정기관이나 법원도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공조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캠페인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캠페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기부자 공동체 형성입니다. 쉽게 말해 네트워크죠. 단순히 기부를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갈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캠페인 전문위원들이 프로젝트의 기안자이자 실행자, 후원자가 된다면 캠페인은 성공할 수 있어요.”

-잠재적인 기부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피니시 더 잡’이라는 캠페인 이름이 프로젝트를 완료한다는 뜻인데, 개인의 입장에서 인생도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보면, 인생의 사명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피니시 더 잡’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 같아요.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방법의 하나가 바로 기부가 아닐까 싶어요. 많은 사람이 ‘피니시 더 잡’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피해와 처벌, 범죄 이면에 소외된 아이들

월드비전 캠페인 피니시 더 잡: 한국

삼형제는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투면서 시작됐다. 수십 년을 동고동락한 부부는 경제적 문제로 언성을 높였고,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 손에 들린 칼에 찔려 사망했다.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사망과 아버지의 구속으로 삼형제는 공황상태가 됐다. 첫째는 25살이지만, 동생들은 아직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다. 어머니 사망 전 치료비도 청구됐다. 월드비전과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병원비와 장례비, 생계비를 지원했다. 유자녀들의 심리상담도 맡았다. 아이들은 부모 사라지고 나서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부채를 아이들이 떠안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들이 지원에 나섰다.

월드비전은 피니시더잡 캠페인으로 국내 범죄피해아동과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범죄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회복지원사업(하트힐링)’을 벌이고 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재단법인 아가페, 사단법인 온율, 아동복지실천회 세움과 협력해 범죄로 피해를 본 아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3년간 총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 4월에는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전문자문위원단도 꾸렸다.

범죄피해 아픔 딛고 다시 세상으로

범죄피해아동은 크게 직접 피해를 본 아동과 가족 중 범죄피해자가 있는 아동으로 나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직접 피해를 본 미성년자는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94만4934명으로 2017년 조사(80만98명)에 비해 18%나 증가했다.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발굴한 이소혁(16)군은 집단폭행으로 치아 여러 개가 부러졌고, 일부는 신경이 노출될 정도로 손상됐다. 폐섬유증을 앓는 어머니는 외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일은 할 수 없고, 이혼한 아버지는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가해자 처벌은 끝났지만 소혁군에게 치료비와 학교생활 적응은 또 다른 과제로 남았다. 월드비전 지원으로 소혁군은 지난 8월에 검정고시에 합격해 대학 진학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

김순이 월드비전 국내사업본부장은 “국내에 범죄피해자보호법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례가 많다”며 “또 수용자 자녀는 갑작스러운 부모의 수감으로 심리·정서적 위기, 경제적 위기 등 복합적 위기를 겪지만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복지지원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했다.

수용자 자녀에게 부모의 수감 경험은 ‘숨겨진 형벌(hidden sentence)’로 불린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 사실을 숨기기도 한다. 월드비전의 수용자 자녀 긴급지원 대상자 중 부모의 수용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례가 전체의 60%에 달했다. 월드비전은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와 함께 수용자가 잠시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가족돌봄귀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부모의 수용 사실을 알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을 위해서다.

범죄피해아동의 약 25%는 가족 내에 가해자가 있다. 범죄 피해 아동인 동시에 수용자 자녀인 셈이다. 신연희 성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범죄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본 아이들은 가해자 가족, 피해자 가족 구분 없이 우리 모두 돌봐야 하는 존재”라며 “현재 여러 전문기관과 함께 협력해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수용자 자녀는 또다른 피해자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미성년 수용자 자녀는 1만1972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1년 1만2167명, 2022년 1만450명인 점으로 봤을 때 꾸준히 1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자녀들을 연령대로 구분하면, 10~14세가 3886명(약 32.5%)으로 가장 많았고, 5~9세 3297명(27.5%), 15~19세 3040명(25.4%), 0~4세 1749명(14.6%)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조사는 수용자 대상으로 기명 설문을 통해 조사되기 때문에 설문에 응답하지 않거나 자료 공개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자녀 존재를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실제 2018년 무기명으로 같은 조사를 했을 때 집계된 미성년 자녀는 2만1765명이었다.

해외에서는 아동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가족의 체포단계부터 수감 기간, 출소 이후까지 단계별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범죄자가 임산부거나 양육자일 때 일정 기간 선고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임산부 또는 10세 미만 자녀를 돌보는 주양육자인 경우 선고 형량 중 최장 4년을 가택구금이나 치료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사법사회복지가 제도화된 나라로 꼽힌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아이들을 지원할 복지기관을 의무적으로 파악한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공식 시스템에 포함된 형태다. 범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처벌하지만, 남겨진 가족은 사회복지 제도로 지원해 양자가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이다. 신연희 교수는 “수용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가장 큰 동기부여는 가족”이라며 “수용자 1인에게 들어가는 직간접 비용이 연간 3100만원 수준인데, 재범률이 낮아지면 이러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왼쪽 사진부터 차례대로 굿네이버스 '더네이버스클럽' 회원인 박윤수씨, 최진웅·김새순씨 가족, 김정환씨 가족, 최미영씨. 이들은 작은 나눔에서 출발해 후원액을 조금씩 키워갔다. [사진 굿네이버스]

소박한 나눔에서 시작된 변화 … 평범한 기부자들의 인생철학

» 1면 '비범한 기부'에서 계속

박윤수씨는 "만약 금전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환경에서 시작했다면 현재의 위치에 도달했을 거라는 자신이 없다"며 "가족이라는 불가항력적인 환경으로 인해 기회를 잃는 존재가 없기를 바라고, 소외된 아이들을 돌보는 쉼터 직원들의 노고 또한 외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금단체를 선정할 때 '특정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했다. "사업가나 기업 단위에서 내는 기부금에 비하면 매우 적은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보려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현재 기획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여러 후원자가 아동보육기관 종사자 지원에도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나눔에서 '삶의 의미' 찾는 사람들

김정환(37)씨는 딸이 생후 1000일째 되던 날 1000만원을 기부했다. 생애 첫 고액기부였다. 그는 "하루 1만원씩 아이를 위해 기부금을 적립했다고 생각하면 큰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어렵게 얻은 아이였다. 병원에서는 부부에게 아이 갖기 쉽지 않을 거라고 말했었다. 김씨는 "어릴 때 딸아이가 잠깐 아프기도 했는데, 건강하게 자라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래 아이들을 돕는 위기가정 아동 지원사업에 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의 글로벌 IT기업에서 기술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기부 당시인 2022년에는 한국지사에 재직했고 지난해 초 본사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기부를 결심하는 데 조직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큰 자연재난이나 전쟁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CEO가 전사 메일을 통해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각자 찾아보자는 식이죠. 추수감사절에는 전 직원에게 기부하라고 100달러(약 13만원)씩 주고, 직원들이 기부하면 회사에서 매칭해서 추가 기부를 합니다. 나눔을 경험하라는 취지입니다."

회사는 매년 최대 1만 달러(약 1300만원) 한도로 직원이 기부한 만큼 매칭 기부금을 내놓는다. 굿네이버스에 1000만원을 기부하면, 회사도 그만큼 기부해 총 2000만원이 전달되는 식이다.

그는 지난해 가족이 이주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갚으면서도 추가 기부 계획을 세웠다. 내년 5월이면 아이가 생후 2000일이 되는데 그에 맞춰 2000만원을 기부할 계획이다. 김씨는 "바쁘게 살다 보면 삶이 공허하다거나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할 때가 가끔 있는데, 기부가 삶의 방향을 잡는데 좋은 수단이 된다"며 "기부를 계속하려면 열심히 살아야 하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에서 오는 만족감이 무엇보다 크다"고 말했다.

김새순(44)씨 역시 가족의 기념일을 챙기기 위해 시작한 기부를 키워나간 케이스다. 그는 지난 2022년 10월 남편 최진웅(45)씨 생일을 맞아 자립준비청년을 돕는 사업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그는 "예전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건 남편을 만났기 때문"이라며 "가족의 사랑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닿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윤수 회원의 후원으로 학대피해아동 쉼터(그룹홈) 종사자들의 소진 예방을 위한 심리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아래 사진은 최미영 회원이 말라위에 설치한 식수시설을 이용하는 아이의 모습.

이듬해인 2023년 4월에는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며 미혼모 자립 지원에 1000만원 후원금을 내놨다. 올해도 미혼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원을 내놓았다. 최진웅씨는 "가족회의를 통해 미혼모 지원사업에 후원을 결심했다"며 "올해는 세월호 10주기이기도 한데, 사회 안전망 강화에 동참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부의 세계로

미국 땅에서 수억원의 기부금을 굿네이버스에 전달한 최미영(53)씨는 10여 년 전 기부에 발을 들였다.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진 결정이다. 그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노르웨이 기업에 취업했다. 해운회사에서 배를 사고파는 금융 일을 배웠다. 이후 미국에 이민 가서 월가에서 10년. 성공을 좇아 살았다. 투자은행(IB)에서 아시아 담당으로 일할 땐 1년에 330일을 출장 다녔다. 개인 사업을 시작하고도 일과 성공이 인생의 목표였다. 그러다 동갑내기 남편의 죽음을 겪었다. "별거 중이던 남편한테 5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말기 암이라네요. 그러고 40일 만에 세상을 떴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그때 처음 멈췄던 것 같아요. 죽음이 오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한 기부는 정기후원에서 사업 후원으로 키워갔다. 지금까지 2억원이 훌쩍 넘는 돈을 기부했다. 아프리카 말라위에 우물을 만들고, 학교도 짓고, 도서관도 세웠다. 그는 "천장이 없는 학교 교실에 신발도 없이 맨발로 등교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며 "공부하러 온다기보다 밥 먹으러 학교에 온다는 아이들 말에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사람은 의미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조금 더 성공한다 한들 허무함에 빠지면 소용이 없죠. 기부를 통해 작은 제 삶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또 아이들도 자신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일어나야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3월에는 말라위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을 엮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 『Love Letter, Children of Malawi(말라위 아이들에게서 온 러브레터)』를 발간했다. 10년 전 출간한 동명 그림책의 영문본이다. 최씨는 "아이들 아빠를 잃고 방황하던 때에 제 마음을 잡아주었던 지금의 남편이 출판과 제작을 도와줘서 함께 작업했다"며 "혹시 사업이 어려워지더라도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판매 수익금은 말라위 아이들에게 지속해서 기부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오래 지내면서 느낀 건 기부문화가 자산가나 기업 위주라는 점이에요. 일반 시민의 자발적인 기부는 한국이 오히려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부할까 하는 마음이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결국 기부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작게라도 시작하면 알게 됩니다.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간접비'는 책무성과 투명성을 위한 필수 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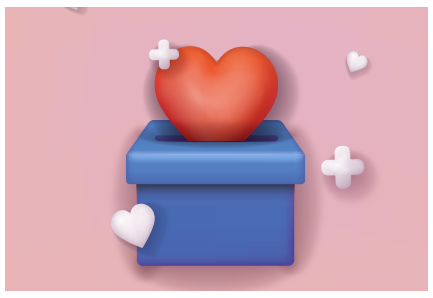
» 1면 '필란트로피'에서 계속

기부자에게 보내는 성과보고서 작성과 발송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기부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간접비는 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면서도 기부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투명성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필수 경비"라고 말했다.

 # 기부자의 각성

최근 인건비나 간접비에 관대한 기부자들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다. IT 창업자 출신 고액기부자들이 중심에 있다. 이들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기부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믿는다. 영리에서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정윤 사랑의열매나눔사업본부장은 "IT나 플랫폼 기업 창업자들은 기부금의 쓰임보다 당초 달성하고자 했던 사업의 성과를 잘 만들어냈는지에 관심이 많다"면서 "김강석 기부자와 김봉진(배달의민족 창업자) 기부자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태도도 달라지고 있다. 김미경 JYP CSR 팀장은 "4년째 월드비전과 해외 환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사회공헌 사업이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비영리의 인건비나 간접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랑의열매는 지난 2013년 배분기관에 대한 간접비 기준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이정윤 본부장은 "기부자와 기업의 요구가 이런 방향으로 바뀌다 보니 배분 시스템도 함께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성과가 잘 나올 수 있게 인건비나 간접비 부분은 최대한 다 잡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황신애 이사는 "인건비와 간접비를 높이면 분명 투명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단체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업과 운영 예산을 배정했는지 스스로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사회공헌 라운드테이블' 13일 개최

IOM한국대표부·대한상공회의소·더버터 공동주최

글로벌 인도주의 위기 현장에서 한국 기업의 역할을 모색하는 '글로벌 사회공헌 라운드테이블'이 오는 13일 서울 중구 ENA스위트호텔 R.ENA컨벤션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더버터가 공동 주최한다. 현장에는 국제기구·기업·공익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외 사회공헌 사업의 성과와 어려움, 민간 협력을 통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파투 자 IOM 아태지역사무소 긴급위기·사후대응 선임전문가는 '인도주의 민간 협력의 필요성 및 아시아 지역 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문형구 고려대 명예교수는 인도주의 위기 현장에서 한국 기업 역할에 대해 다룬다.

주요 기업의 사례 발표도 진행된다. 윤지현 IOM 한국대표부 파트너십 리드와 파투 자 선임전문가는 글로벌 IT 기업 애플이 UN과 파트너십을 맺고 사회공헌 사업을 펼친 사례를 자세히 소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삼성전자·KT의 사회공헌 담당자가 해외에서 진행한 사회공헌 경험을 공유한다. 모더레이터는 김시원 더버터 대표가 맡는다. 토론이 끝난 후에는 네트워킹 시간이 별도로 마련된다.

행사장에서는 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국제사회에 전략적으로 기여하고 싶은 기업·재단의 사회공헌 관계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8일까지 온라인 페이지(bit.ly/global_csr)에서 할 수 있다. 문의 02-3789-7863

최지은 더버터 기자

“우리는 재난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습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내 곁의 호우’

충북 단양군 주민들이 담벼락에 붙일 조형물을 만들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빛공해 방지용 조명을 설치하는 충남 예산군 봉사자들. [사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충남 예산군에는 장마철에 물난리를 겪는 마을이 많다. 한밤중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가로등은 켜지지 않는다. 불빛이 농작물 성장을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벼를 수확하는 가을까지 가로등을 끄고 지내다가 겨울이 오면 다시 켠다.

“이러다 진짜 사고 난다.”

최근 몇 년 새 이상기후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졌을 때도 주민들은 어둠 속을 헤쳐 가며 겨우 마을을 빠져나왔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결책이 필요했다.

지난해 7월, 기상청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전국에서 약 2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사건 초기에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언론도 피해 상황을 앞다퉈 보도하면서 긴급 구조와 지원이 이뤄졌지만, 관심이 지속하지는 않았다.

피해 마을을 다시 찾은 건 ‘자원봉사자’들이었다. 지난해 12월 예산군자원봉사센터는 봉사단을 꾸렸다. 예산읍·오가면·신암면의 90가구를 방문해 빛공해 방지용 LED 야외조명등을 설치했다. 태양열로 작동하는 은은한 조명은 농작물이 자라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 올해 여름에는 밤에 집집마다 가로등이 켜졌다. 주민들은 “농사도 잘되고, 해지고 나서도 마을회관에 나갈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20년 만에 모인 주민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수해 피해지역 주민의 일상을 다시 들여다보는 ‘내 곁의 호우(好友)’ 사업을 지난 1년간 벌였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시행된 이번 사업으로 전국에서 약 3000명의 자원봉사자가 호우피해 주민 1만7255명을 만났다.

자원봉사자들은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 다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김의욱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의 특징은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세하고 친밀한 방식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원봉사자들은 현장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이제는 지역의 재난회복력을 높이는 일감을 찾아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데까지 자원봉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전국 24개 지역의 마을을 방문해 안부를 묻고 일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활동을 펼쳤다. 설에는 마을회관에서 떡국을 끓여 주민과 나누고, 명절 선물도 전달했다. 온수기·방한복 같은 방한용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대구 군위군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마을 세 곳을 방문해 축제를 열었다. 기획 단계부터 수시로 주민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묻고 또 물었다. 주민 223명의 응답을 종합했더니 ‘마을공동체를 되살리자’는 의견이 많았다. 봉사자들은 반려식물 심기, 파우치 만들기, 냄비받침 만들기 같은 체험 행사부터 기초건강검진, 미용, 손 마사지 같은 서비스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혹시 모를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니 구급함, LED 랜턴 등이 들어있는 키트도 배부했다.

마을부녀회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음식을 대접했다. 박건환 부계면 신화1리 이장은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다 같이 모여서 밥을 해 먹은 게 20년 만”이라며 “호우 피해가 심해서 암담했지만, 오랜만에 주민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는 모습을 보니 위안이 됐다”고 말했다. 임지영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팀장은 “자원봉사자들과 가까워진 주민들이 힘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털어놓으면서 더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북 칠곡군 가산면 용수리에는 마을 정원이 생겼다. 칠곡군은 지난해 8월 태풍 ‘카눈’으로 도로가 유실되고 농경지가 침수돼 32억원 규모의 피해를 본 지역이다. 마을 경관이 망가지면서 분위기도 침체됐다.

지난 4월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들은 묘목과 모종을 들고 용수리 마을을 찾았다. 마을 중앙에 방치돼 있던 230㎡(약 70평) 규모의 땅을 정원으로 가꾸기 위해서였다. 봉사자들은 사흘간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땅을 고르고 나무와 모종을 심었다. 시큰둥하던 주민들도 한두 명씩 손을 보태기 시작했다. 마을 최고령자인 99세 어르신까지 동참하면서 정원을 돌보는 일은 주민들의 중요한 일과가 됐다. 두 달에 한 번씩은 온 주민이 모여 잡초를 뽑는다.

마을 주민 이현정(47)씨는 “그동안 귀촌한 사람들과 마을 선주민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는데, 정원 가꾸기를 하면서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충북 단양군에서도 자원봉사자와 주민들이 함께 호우로 얼룩진 마을 담벼락을 다시 꾸몄다. 봉사단이 도색한 담벼락에 주민들이 알록달록하게 색칠한 매화 모양 조형물을 붙였다. 작업하는 동안 마을에는 다시 활력이 돌았다. 분위기도 경관도 전보다 더 좋아졌다.

재난을 예방하는 자원봉사

전문가들은 “재난으로 힘든 상황을 잘 회복하면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더 강해지고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최근 재난심리 연구에서는 이런 내용의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이 주목받고 있다. 이윤호 한국재난심리연구소장은 “사회의 도움으로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는 경험을 한 구성원이 늘어나면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더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후 원상태로 돌아오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과정”이라며 “이때 가장 필요한 건 사회적 지지”라고 강조했다.

재난회복에 나선 자원봉사자들은 피해 예방 아이디어를 앞다퉈 내놓기도 한다.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2년 전부터 커뮤니티매핑센터와 협력해 ‘하수도 커뮤니티 맵핑’ 봉사를 지속하고 있다. 하수도맵핑은 빗물을 원활하게 배수하기 위해 도로 주변에 설치된 하수구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전용 애플리케이션에 상태를 기록·관리하는 활동이다. 봉사자들은 매년 6~9월 팀을 꾸려 도로 옆 하수도 유입구 점검에 나서고 있다. 담배꽁초·낙엽 등 하수도를 막고 있는 오물을 제거하고 전용 애플리케이션에 사진과 기록을 올린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담당 인력을 파견해 보수 작업을 마무리한다. 올해만 845건의 데이터를 수집해 지자체에 44건의 보수 요청을 했다. 김용철 호남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기후변화로 재난·재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세밀하고 정교한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며 “자원봉사의 활동 범위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을 발굴, 추진하면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은 더버터 기자

자립준비 청소년들의 ‘소모임’을 지원합니다

“서로의 상황을 공감하고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친구와 선배가 생겨 너무나 든든합니다.”

지난 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MG로드 투 자립 진로교육 프로그램 최종 공유회’에 참석한 A군은 떨리는 목소리로 “가족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호종료를 앞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그룹홈·보육원 등 아동보육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를 받는 청소년들은 만 18세에 보호종료로 시설을 나와야 한다. 매년 2400명이 홀로서기에 나선다. 이들은 당장 살 곳을 구하고 돈을 벌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일까지 혼자 짊어져야 한다.

A군은 “어떤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아르바이트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다”며 “비슷한 상황을 먼저 헤쳐나간 형과 누나들과 같은 고민하는 친구를 만날 수 있어 앞으로는 잘나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일러스트=DALL-E

MG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부터 자립을 앞둔 청소년을 선발해 경제·금융 교육과 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자립준비청년 선배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전국에서 모집한 청소년 38명은 지난 7월 광주광역시에 모여 1박 2일간 미래의 밑그림을 그리는 ‘자립캠프’를 시작으로 9월까지 소모임을 꾸려왔다. 소모임은 선배 자립준비청년이 멘토로 참여해 체험형·진로형·로컬형 등으로 운영됐다. 교육은 구체적으로 ▶내 강점 찾기 ▶나만의 정체성 찾기 ▶채용 트렌드 ▶직무나 기업 탐색 ▶직무 역량 점검 등 다양하다. 다섯 번에 걸친 개별 소모임에서는 팀별 계획에 따라 대학과 기업에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는 청소년들이 머무는 그룹홈 리모델링에도 나서고 있다. 가정 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아동이 머무는 그룹홈 시설 역시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1년부터 ‘MG Dream 하우스 사업’을 통해 전국 38곳의 그룹홈을 지원했다. 선정 그룹홈에는 최대 2000만원 규모의 리모델링 지원금과 100만원 상당의 문화체험 활동비를 준다. 올해는 전북 임실군의 파랑새그룹홈 등 12곳이 지원 대상지로 선정됐다.

리모델링 지원의 핵심은 친환경과 에너지 효율화다. 난방시설을 탄소배출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저녹스 보일러로 바꾸고 공사 자재도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다. 그룹홈을 운영하는 C씨는 “외풍도 제대로 못 막는 창문과 곰팡이가 퍼진 바닥을 수리하고 싶었지만, 정부 지원금으로는 공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다”면서 “이번에 집을 싹 고치면서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게 됐고, 아이들도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단 사실에 감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미래 세대가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게 지원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응원하겠다”고 했다

박선하 더버터 기자

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 10년…카카오가 바꾼 것들

카카오임팩트×푸른나무재단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10년의 임팩트

카카오임팩트와 푸른나무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이하 사디세)'은 올해 10년째 순항 중이다.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 가운데 최장기 프로젝트다.

사디세는 사이버폭력과 디지털 리터러시 중심이던 디지털 시민교육을 디지털 에티켓과 온라인 정체성,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등으로 다각화한 최초의 교육으로 평가받는다.

교육 콘텐츠는 매년 최신 이슈를 반영해 업데이트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이해와 범죄 대응법을 담았다. 프로그램은 수준별 맞춤 수업이 가능하도록 세분화해 나갔다. 사업 초기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 두 단계로 구분됐던 프로그램을 2년 만에 3단계로 구분했고, 이후 학년별 6단계로 또 쪼갰다.

육심나 카카오임팩트 사무총장은 "태어날 때부터 모바일 기기와 마주한 '본 디지털(Born Digital)' 세대들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디지털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며 "어느덧 10년째 지속하면서 교육받은 학생이 성인이 되는 시기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10년의 임팩트

누적 참여 학교	2339개교
누적 참여 학급	1만1434학급
누적 참여 학생 수	25만4760명
연구보고서 발간	총 6건

디지털 시민성 교육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에 참여한 경기도 안산시 이호초등학교 3학년 5반 학생들. [사진 카카오임팩트]

디지털 시민 25만 명 배출

사디세가 시작된 건 2015년이다. '디지털 시민교육'이라는 말이 국내에 흔치 않던 시기다. 첫 사업명도 '디지털 리더십 스쿨'이었다. 이듬해 현재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 대상지도 수도권에서 매년 조금씩 전국구로 넓혀나갔다.

같은 해 11월 유네스코에서는 '교육 2030 아젠다'를 통해 디지털 기술과 정보의 윤리적 사용, 리터러시 교육 등 디지털 시민성의 핵심 요소의 필요성을 각국 정부와 교육 기관에 제안했다. 재단은 이보다 앞선 2015년 6월부터 학교 현장을 찾아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진행했다. 첫해 57개교 1만1368명으로 출발한 교육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올해 기준으로 누적 2339개교, 1만1434학급, 25만4760명이 수료했다.

사업 초기만 해도 디지털 교육에 대한 요구는 크지 않았다. 사이버폭력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한다는 수준이었다. 푸른나무재단이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달랐다. 사이버폭력 피해율은 2010년 2%에서 2015년 10.5%로 뛰어올랐고, 이후 2020년 16.3%, 2021년에는 31.6%까지 치솟았다. 조성훈 푸른나무재단 과장은 "학교폭력의 저연령화와 맞물리면서 디지털 공간에서 행동양식을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던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전국 도서벽지로도 지역 출강을 마련해 교육을 확산시켰고, 덕분에 지역 간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디지털 시민성, 교사들도 배운다

사디세 교육 프로그램은 디지털 시민성 7대 주제인 ▶디지털에티켓 ▶사이버폭력 ▶개인정보보호 ▶디지털리터러시 ▶저작권 ▶온라인정체성 ▶감정 및 공감 등으로 구성된다. 인천시 강화군 갑룡초등학교 배은영 교사는 "특수학급을 맡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잘 짜인 디지털 분야 교육이 많지 않다"며 "단순히 기술 교육이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시흥시 승지초등학교 양기정 교사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사디세 교육을 신청하고, 교사 연수에도 참여했다. 이처럼 교육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이유는 동료 교사들에게도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권하기 위해서다. 양 교사는 "교사들도 시대 변화에 발맞춰 교육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다"며 "사디세를 한 번 경험한 교사들은 교육의 방향성을 금방 알아채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디세가 수년째 지속하면서 교사들의 인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인천시 대청초등학교 최광철 교사는 "도서 지역의 학교라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면서 대면교육에 비해 학생들의 흥미나 교육적 효과가 덜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다"며 "디지털 중독에 취약한 초등학생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원격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인천 백령도에서 근무하는 박상수 북포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디지털 환경은 지금보다 더 급변할 텐데, 단순히 사건마다 대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이 움직였다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창의적 체험활동에 편성된다. 교사의 판단에 따라 교과 외 과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식이다.

최근 교육 당국에서는 디지털 윤리나 디지털 시민교육 자료를 제작해 교사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다만 자료가 전형적이라 교실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성훈 과장은 "일부 교사들은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국어나 수학처럼 정규교과 과정으로 편성해서 수업 시간표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길 정도로 요구가 크다"고 말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디지털 시민교육을 정규교과로 편성하는 흐름이다. 네덜란드는 초등 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디지털 시민성을 다루고 있다. 핀란드는 지난 2016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시민성을 교육과정에 통합했다. 덴마크는 교육 현장의 디지털화에 10년 넘게 투자해 온 대표적인 국가다. 그러다 올 초부터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고 디지털 환경의 사회적·철학적 의미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도록 속도 조절에 나섰다.

우리 정부도 지난 9월 디지털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을 선언하는 헌장을 발표했다. 지난해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과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디지털 시대의 가치와 원칙을 교육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육심나 사무총장은 "10년째 '롱런'하는 사회공헌 사업이지만 대단한 비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면서 "부족한 점은 개선하고 장점을 극대화한 꾸준한 노력이 교육 현장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다문화를 이해하는 시간 '하모니움 페스티벌' 현장

"다양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려면 어떤 가치가 중요할까요?"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색색 털실을 손에 든 사람들이 체험형 전시 부스 '키워드 아트월: 발견의 기쁨' 안으로 들어섰다. 배려·존중·공감·다양성·지속가능성 등 벽에 붙어 있는 40개의 키워드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골라 털실로 이어보는 체험 전시다. 부스 참가자들은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글자들을 연결했다.

기아가 주최하고 임팩트스퀘어와 더버터가 공동 주관한 '하모니움 페스티벌(Harmonium Festival)'이 노들섬에서 개최됐다. 하모니움(Harmonium)은 하모니(Harmony·조화)와 움트다(새싹이 돋다)의 합성어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미래세대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회를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하모니움 페스티벌'에서 가수 스윗소로우가 공연하고 있다. 김용재 더버터 기자

이번 페스티벌은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아의 신규 사회공헌 사업 '하모니움'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다문화를 주제로 한 기획전시를 포함해 토크콘서트와 야외음악회 등이 진행됐다.

행사는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이어졌다. 가을 피크닉 분위기의 페스티벌 현장에는 가족·커플·친구 등 나들이객 1만여 명이 방문했다. 부산에서 온 조은혜(30)씨는 키워드 아트월 부스에서 '배려' '신뢰' '포용성'이라는 세 단어를 선택해 실로 연결했다. 그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기 위해 서로 배려하다 보면 사회 구성원 간에 신뢰와 포용성도 높아질 것 같아서 이 단어들을 골랐다"고 말했다.

미국·일본·중국·독일 등 다양한 국적의 관람객도 행사장을 찾았다. 털로 감싼 철사를 구부려 토끼·곰돌이 인형을 완성하는 '모루인형 만들기' 코너는 특히 인기를 끌었다. 국적이 다른 참가자들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강사의 설명에 따라 인형을 제작했다.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이 설명을 따라가지 못해 뒤처지자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참가자가 만드는 방법을 다시 알려주며 도왔다.

'차이를 넘어 공존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는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와 강남이 참여했다.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면서 느낀 점, 다문화 사회에 대한 생각과 바람을 시민들과 함께 나눴다.

일몰 무렵인 오후 5시 30분부터는 잔디마당에서 야외 음악회가 열렸다. 한강을 덮은 노을 아래서 '하모니움: 서로 다른 소리가 만드는 하나의 큰 울림'을 모티프로 가수 존박과 스윗소로우가 라이브 무대를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열렸다. 이덕현 기아 지속가능경영실장,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김시원 더버터 대표가 지자체, 학계, NGO, 다문화 지원기관 참가자들과 함께 다문화 사업 방향성과 협력 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이덕현 실장은 "기아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라는 기업 비전 아래 누구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차질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하모니움 페스티벌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지은 더버터 기자

"크리에이티브가 세상을 바꾼다"

김경신 파울러스 대표 인터뷰

광고업계에서 '크리에이티브(creative)'라는 말만큼 폭넓게 쓰이는 단어가 없다. 사전적 정의는 '창조적인' 혹은 '창의적인 사람'이지만, 광고계에서는 다르게 쓰인다.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행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 과정을 이른다.

파울러스는 국내에서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표방하는 마케팅 전문기업이다. 창업 3년 차인 2018년부터 매년 국제 광고제에서 상을 받아온다. 수상 목록을 살펴보면 기업 사회공헌이나 국제개발 사업, 공공 서비스를 다룬 캠페인이 눈길을 끈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파울러스 사무실에서 만난 김경신 대표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는 "제품 홍보를 넘어 사회적가치를 담은 브랜드가 어떻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늘 고민한다"고 했다. "광고를 단순히 제품 알리는 도구로 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시대가 오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이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전통적인 광고는 제품이나 브랜드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 데 집중했다. 이제는 사회문제 해결에 브랜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한다. 그걸 실현하는 게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이다."

-대중 맞춤형 마케팅을 말하는 건가.

"대중은 변하고 있다. 아니 이미 변했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는 수신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상황에서 광고도 창의적으로 진화해야 하고, 대중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 그냥 '좋구나!'가 아니라 '이게 뭐야?'하고 다가올 수 있게 말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해외 브랜드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호감도 그 결과라고 본다. 다만 국내에서는 그 부분이 약한 편이다."

-국내 기업들은 어떤가.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른바 '나쁜 기업'의 제품을 불매하는 움직임이 강하고, 특히 젊은 소비자들은 브랜드의 윤리적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기업들도 실행 중이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나.

"기획 단계부터 브랜드와 사회적가치를 연결할지, 가장 극대화하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찾는다. 필요하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안하기도 한다. 광고 캠페인은 마지막 결괏값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례가 있나.

"예를 들어 국내 건설사와 협업한 '쉐어드 세이프티(Shared Safety)'라는 프로젝트가 있다. 실제 공사 현장은 디지털 공간에 옮기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다. 사회문제를 기술과 결합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사례였다. 지난해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금상을 받기도 했다."

김경신 대표는 "크리에이티브는 기술 발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작은 사진은 파울러스 크리에이티브 솔루션팀 구성원들. 김용재 더버터 기자, [사진 파울러스]

-잘 만들어진 캠페인은 언젠가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나.

"정말 내실 있고 좋은 사업이 항상 대중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건 아니다. 특히 사회공헌 사업이 그렇다.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뻔해 보이기도 한다. 브랜드의 본질적인 가치를 사회적 책임과 효과적으로 연결 짓지 못해서다. 그걸 해냈을 때 영향력은 훨씬 커진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광고는 기존 광고와 무엇이 다른가.

"예를 들어,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에 주목해 매일 우유를 배달하고 어르신 안부를 묻는 캠페인이 있다. 단순히 우유를 홍보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프로젝트다. 소비자들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브랜드에 더 호응한다."

-모든 브랜드에 사회적가치를 담을 수 없지 않나.

"아니, 가능하다. 사회에 해악을 끼치기 위해 존재하는 기업은 없다. 사회적가치와 접점을 찾지 못했다면 고민을 덜한 거다. 그게 아니라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사회공헌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도 한다고.

"회사 설립 때부터 광고는 대중과의 소통이자, 문제 해결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네팔, 케냐, 우간다 등에서의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참여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코이카나 국제개발협력 NGO와 함께 현지로 가서 아이들에게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교육을 진행했고, 산악 지역에 라디오 지국을 설치하는 사업도 했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특히 인력을 파견하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했다."

-직원들이 잘 받아들이는지 궁금하다.

"우리는 광고 제작사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파트너라고 직원들에게 말한다. 감사하게도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하는 직원이 많다.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시장은 열린다고 믿는다. 아직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커뮤니티에 기업들의 솔루션이 도달할 수 있도록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펼치고 싶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아동복지시설 아이들에게 '경제와 협동'을 가르치다

초등학생 A양은 부모님과 매주 실랑이했다. 매주 3만원씩 용돈을 받는데, 주초에 돈을 모두 써버리고 주말이면 쓸 돈이 없었다.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거나 친구들에게 빌리기까지 했다. 그러던 A양이 최근 크게 변했다. 용돈 사용 계획을 세워 그대로 사용하고, 남는 돈은 저금하기도 한다.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법을 배우면서 일어난 변화다. A양은 "돈을 계획적으로 쓰는 일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배웠다"며 웃었다.

어부바 멘토링에 참여한 아이들 모습. [사진 신협]

신협사회공헌재단은 금융 전문가인 신협 직원들이 경제와 협동을 주제로 '어부바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226개 신협과 인근 아동복지시설을 1대1로 매칭해 멘토링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신용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의 특성을 살린 협동 교육, 용돈 관리, 똑똑한 소비 등 금융과 관련 지식을 이론으로 전달할 뿐만 아니라 신협 견학, 구매계획에 따른 전통시장 장보기 프로그램 등 체험활동도 병행한다.

양질의 멘토링을 위해 멘토와 코디네이터 대상으로 한 교육도 별도로 이뤄진다. 멘토들은 기본 소양 교육과 함께 우수 멘토링 사례 공유, 경제교육 교구 활용법 등에 대해 배운다.

참가자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경기 지역의 한 지역아동센터장은 "경제·금융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스스로 돈을 관리하면서 판단력과 책임감이 높아지고, 학교생활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우욱현 신협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는 "재단은 2016년부터 5000명의 신협인이 전문성을 발휘해 2만6000명의 미래 세대에게 유익한 지식과 경험을 전달했다는 데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는 금융기관으로 다양한 교육 분야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선하 더버터 기자

소셜섹터 NOW

기빙플러스·밀알 '2024 ESG 컨퍼런스'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 경영을 논의하는 'ESG 컨퍼런스'가 오늘(7일) 열린다. 무신사·SK텔레콤·한국쓰리엠의 ESG 관계자가 각사의 혁신 사례를 공유한다. 율촌·온율이 후원한다.

중서원 '소셜 파트너스 클럽' 개최
중앙사회서비스원이 8일 서울 헤이그라운드성수시작점에서 서울 사회서비스 분야 비영리조직의 네트워킹을 위한 '소셜 파트너스 클럽'을 연다. '세상을 바꾸는 임팩트'를 주제로 한 강연도 진행된다.

17회차 맞은 '체인지온컨퍼런스'
다음세대재단과 카카오임팩트가 주관하는 '2024 체인지온컨퍼런스'가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1일 열린다. 비영리 관계자 400명이 '사랑'을 주제로 공익활동에 필요한 생각을 나눈다.

황신애의 기부상담소

내 기부금, 광고 속 아이에게 전달될까?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Q TV 광고에서 수술이 필요한 아이의 영상을 보고 마음이 짠해 후원했어요. 그런데 후원이 그 아이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은 건가요.

A 내 용돈을 아껴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누군가에게 후원했는데, 그 돈이 내가 기대한 내용과 다르게 쓰인다는 사실을 나중에 듣게 되면 이만저만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TV 방송에 비치는 한 사람의 이야기는 단지 그 한 명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대변하는 목소리죠. 후원자의 눈에는 한 명의 사연이 들어오지만, 그 사연 뒤에는 비슷한 상황과 처지의 수많은 이들이 기대고 있어요.

TV 방송이나 매체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큰 비용이 들고 기회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연을 모두 영상으로 소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연에 채택되는 경우에만 후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움받기 어렵다면 아마도 후원은 '쇼윈도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어려운 사람들의 사연을 진열대에 걸어두고 아픈 이야기를 상품화해서 후원자들이 각자의 취향대로 선택하도록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매우 잔인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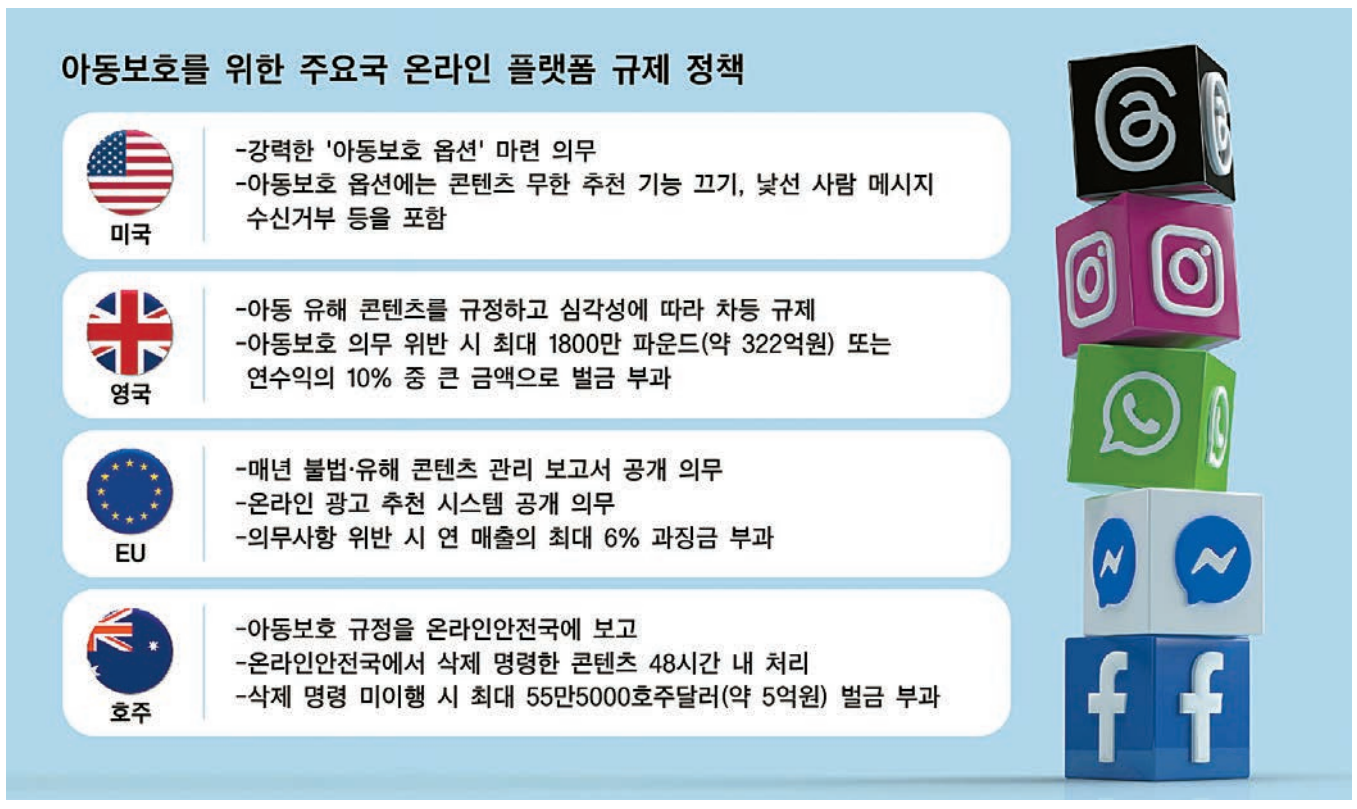
모금단체들은 날마다 도움이 필요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의 사연을 접하지만,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 모금 이야기에 펼칠 수는 없기에 가장 적합하고 또 소개하기에도 무리가 없는 사연들을 대표적으로 골라 후원 요청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후원금이 모이게 되면, 사연 제공자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후원금이 전달되어 삶에 보탬을 주고 희망을 전합니다. 물론, 이런 배분과정과 절차에는 타당한 기준과 합리적인 결정의 기록들이 남아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후원자가 질문할 때 모금하는 단체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만약 내가 후원한 돈이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아닌 누군가에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직접 단체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100%가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달되지는 않겠지만,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어떤 방식으로 잘 사용된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혹, 그런 설명을 잘 해주지 못하는 곳에 기부하는 것이 싫다면 더 명확한 설명을 하는 단체를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호주·영국·EU는 플랫폼 기업에 아동보호 책임 묻는다

초록우산×더버터 공동기획

온라인 세이프티 프로젝트 ②〈끝〉



호주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주기적으로 '숙제'를 낸다. 주제는 '어린이의 안전'. 플랫폼에 떠다니는 유해 콘텐츠로부터 미성년 이용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숙제다. 호주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내달 19일까지 아동보호 계획안을 호주 정부 기관인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에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안전국은 지난 9월 인스타그램·틱톡 같은 소셜미디어 기업에 어린이 가입 현황과 기업 차원의 이용 연령 제한 조치 등을 담은 보고서도 요청했다. 기업들이 제출한 보고서는 대중에 공개된다. 2021년 제정된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1)'에 따라 시행 중인 조치다. 사용자들이 업로드하는 유해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기업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호주뿐 아니라 영국·미국·EU 등 주요국가들은 플랫폼 기업에 아동보호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강영은 초록우산 사내변호사는 "영국에서는 아동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연수익의 최대 10%까지 물릴 정도로 강력하게 규제한다"고 말했다.

광고수익 vs 아동보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막대한 광고 이익을 얻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의 어맨다 라풀 교수팀 분석에 따르면,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엑스·스냅챗 등 6개 소셜미디어는 2022년에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110억 달러(약 15조원)의 광고 수익을 올렸다.

공동연구자인 브린 오스틴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막대한 광고수익은 기업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걸 시사한다"고 말했다.

주요국에서는 기업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온라인에서 아동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 법 마련에 나서고 있다. 영국 의회는 지난해 '온라인안전법'을 통과시켰고, 2025년 하반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유해 콘텐츠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 플랫폼 기업에는 최대 1800만 파운드(약 322억원) 또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연간 수익의 10%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규제 범위도 넓다. 불법이 아니더라도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는 모두 규제 대상이다. 자살·자해·섭식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나 인종·종교·성별·장애에 대한 모욕적 콘텐츠도 제재 대상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7월 '아동온라인안전법(KOSA)'과 '아동·청소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COPPA 2.0)'이 상원을 통과했다. KOSA는 플랫폼 기업이 아동보호를 위해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원하지 않을 경우 낯선 이용자와의 대화나 콘텐츠 추천 기능을 끌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COPPA 2.0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를 금지했다. EU는 지난 2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했다. 기업들은 콘텐츠 관리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공개하고, 광고 추천 시스템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글로벌 연 매출의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국은 사실상 '규제 없음'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플랫폼 기업도 솔루션을 내놓고 있다. 애플은 지난달 24일 호주 어린이들이 에어드롭·페이스타임을 통해 원치 않는 유해 이미지나 동영상을 접했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발신자 차단, 도움 요청 메시지 기능도 함께 넣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여전히 기업의 자율규제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콘텐츠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다. 강영은 변호사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은 선정적이고 왜곡된 정보를 크게 부풀려 표현하기도 한다"며 "자율규제가 오히려 온라인 안전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온라인 플랫폼은 성착취물 같은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아야 한다. 다만 음란물, 자살 유도 콘텐츠, 사이버 불링 등 불법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유해 콘텐츠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기업이 유해 콘텐츠를 방치해도 현황을 공개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정책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아동권리옹호단체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법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초록우산은 아동의 온라인 안전 문제 공론화를 위해 '온라인 세이프티(Online Safety)'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치면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초록우산아동권리옹호단원인 손예원(12) 양은 "어린이들이 온라인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많은 사람이 알아야 대책도 나올 수 있다"며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록우산은 공익변호사들과 함께 해외 사례 연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초안 작성 등 체계적인 법안 마련을 위한 작업도 추진 중이다. 초록우산이 제시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 유해 정보' 개념 신설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확대 및 수행결과 공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아동·청소년 보호의무 도입 ▶정보통신서비스 위험평가 의무 도입 등이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고 아이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법과 제도의 개선,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 국민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지은 더버터 기자

기후 약자를 돌보는 N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아이 셋을 둔 엄마입니다. 더운 여름날 임신부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을 담아 만든 폭염예방키트를 잘 활용해서 예쁜 아기 출산하시고, 몸조리 잘하세요."

올해 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서 마련한 '임신부 폭염예방키트'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쓴 손편지가 하나씩 담겼다. 지난 4월부터 석 달간 20가족이 힘을 모아 만들었다. 키트는 수딩젤, 유기농 보리차, 미네랄 소금사탕, 쿨스카프 등 더위를 이겨내는 데 필요한 물건들로 채워졌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마련한 키트는 지역 보건소를 통해 임신부 160명에게 전달됐다.

1 임신부를 위한 손편지를 쓰는 가족자원봉사단. 2 자원봉사자(오른쪽)가 노점상인에게 폭염예방키트를 전달하고 있다. 3 '숨 쉬는 무더위쉼터 만들기'에 참여한 시민들. [사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기후 약자를 돌보다

임신하면 체온이 평소보다 0.2~0.5도 높아진다. 체온 조절 능력도 떨어져서 여름이면 더위를 더 타게 된다. 임신부가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면 태아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조산 위험도 커진다. 정은혜 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 대리는 "우리 사회에 아직 임신부가 기후 약자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 이런 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극단적인 기온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자원봉사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정부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놓인 기후 약자를 발견하고, 직접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에서는 전통시장의 노점상인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전통시장은 대부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바닥 위에 조성돼 있어 지열이 쉽게 식지 않는다. 천막조차 없는 야외에 자리를 잡은 노점상인들은 그늘을 피할 방법이 없어 한여름 땡볕을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다.

제천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월 전통시장 노점상인을 위한 폭염예방키트를 만들었다. 손선풍기, 쿨토시, 식염 포도당 등으로 구성된 꾸러미 200여 개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제작해 고령의 상인들에게 전달했다. 김승희 제천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80대 어르신들이 파라솔도 없이 뙤약볕에 앉아 계셨다"면서 "폭염예방키트를 드렸더니 '신기한 냉감 용품이 많다'면서 좋아하셨다"고 말했다.

시민 300여 명이 모은 무더위쉼터 데이터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지난 6~8월 '숨 쉬는 무더위쉼터 만들기' 챌린지를 했다. 정부가 지정한 무더위쉼터를 직접 방문해서 냉방시설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지도상 위치와 실제 위치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했다. 데이터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하나의 플랫폼에 모았다.

시민 300여 명이 572곳을 방문해 54개의 개선점을 확인했다. 김선용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팀장은 "공공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시민들이 메우고 있다"며 "이번 챌린지에서 수집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해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한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극단적 기후가 지속되면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지만, 국가나 기업만의 힘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서로를 돌보는 시민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순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은 "기후위기가 심화할수록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는 늘어날 것"이라며 "자원봉사자들은 지역의 재난약자를 찾아내고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지은 더버터 기자

나의 이름은 '웃음이 넘치는 여자' 입니다

혁신을 만나다 정정윤 핸드스피크 대표

지난달 28일 서울 서교동 연습실에서 정정윤 핸드스피크 대표를 만났다. 농인 아티스트들을 위해 만든 전 세계 하나뿐인 연습실이다. 김용재 더버터 기자

핸드스피크 매달기부 모금함

농인(수어로 대화하는 청각장애인)들은 이름이 두개다. 한글로 된 본명 이외에 '얼굴이름'이라는 게 따로 있다. 한글 이름을 수어로 표현하면 시간이 걸리니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특징을 뽑아 '왼쪽 보조개 여자' '안경 추켜올리는 남자' 등으로 서로를 부른다.

정정윤(39) 핸드스피크 대표에게도 농인들이 만들어준 얼굴이름이 있다. 주먹을 쥔 채 새끼손가락을 하나 세우면 여자라는 뜻. 그 상태에서 엄지에 나머지 손가락을 붙인 다음 미소 띤 입술선을 따라 손을 움직인다. '웃음이 넘치는 여자'라는 뜻이다.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건물. 천장이 높은 3층 연습실에서 정정윤 대표를 만났다. 웃음소리가 특이했다. 빠르고 경쾌하게, 자주 웃고 크게 웃었다.

핸드스피크는 2018년 설립된 농인 예술기업이다. 수어댄스, 수어뮤지컬과 연극, 수어노래와 랩 공연 등 농인 아티스트들이 직접 작품을 기획하고 무대를 선보인다. 전용 연습실을 가지게 된 건 작년 7월. 정 대표는 이곳을 '꿈의 공간'이라고 불렀다.

진동과 울림

-연습실이 굉장히 밝아요.

"양쪽 면이 통유리로 돼 있고 긴 벽 전체에 거울이 붙어있어서 더 밝게 느껴지나 봐요. 여기서 서른 명 정도가 함께 연습할 수 있어요."

-꿈의 공간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곳이네요.

"공간 자체도 밝고 좋지만, 멤버들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연습실이 있다는 게 저희에겐 의미가 커요. 농인 댄서와 배우들이 예술 활동을 하기에 특화된 공간이고요."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가장 중요한 건 바닥이에요. 농인 아티스트를 위해 특수하게 고안된 '진동바닥'이 깔렸어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농인들은 스피커를 통해 바닥에 전해지는 진동으로 음악을 느껴요. 박자를 셀 때 청인(음성언어로 소통하는 사람)들처럼 원, 투, 쓰리, 하고 말로 세지 않고 발로 쿵쿵 울리면서 박자를 맞추죠. 비트와 울림이 최대한 잘 느껴질 수 있는 진동바닥을 시공하려고 거의 6개월간 연구했어요."

-시중에 그런 게 없었나 봐요.

"소음이 안 나도록 시공해달라는 경우는 있어도 진동이 느껴지게 해달라는 경우는 잘 없죠. 소재를 조합하고 두께를 바꿔가면서 만든 게 이 바닥이에요."

-댄서나 배우들이 좋아하겠어요.

"매우 좋아해요. 연습하기 편하다고요(웃음). 공간을 보면 중간에 기둥 같은 게 하나도 없죠. 이것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에요. 연습할 때 서로 수어로 소통해야 하는데 기둥이 있으면 잘 보이지 않아서 원활하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갖춰진 연습실이 해외에도 있나요.

"다녀봤는데 없었어요. 농인 아티스트들을 위해 바닥까지 공사한 공간은 이곳이 유일해요."

손잡아줄 한 사람

-농인에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2009년 공연기획사에 근무할 때 춤추는 걸 좋아하는 농인 청소년 셋을 알게 됐어요. 이혜진·김희화·김지연. 그저 취미로 춤을 추는 줄 알았는데 춤이 아이들의 '꿈'이더라고요. 댄스 수업받을 때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문자로 쳐서 알려주기도 하고 공연할 때 가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 인연이 이어진 건가요.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매니저 역할을 했어요. 한번은 해외에서 열리는 대규모 '데프댄스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됐는데 우리 공연을 보고 사람들이 다들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바가 좀 많았어요."

-어떤 깨달음이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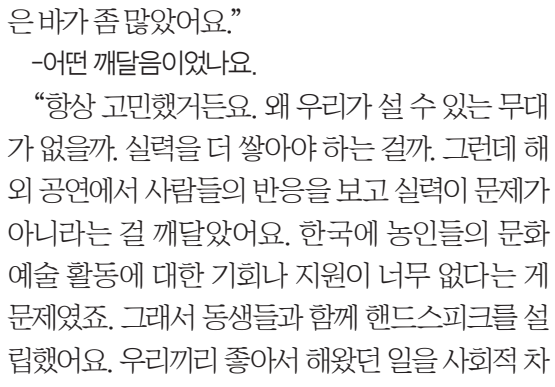
"항상 고민했거든요. 왜 우리가 설 수 있는 무대가 없을까. 실력을 더 쌓아야 하는 걸까. 그런데 해외 공연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 농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기회나 지원이 너무 없다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동생들과 함께 핸드스피크를 설립했어요. 우리끼리 좋아서 해왔던 일을 사회적 차원으로 넓혀보자고 뜻을 모았죠."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것 같네요.

"자체 '수어통역팀'부터 만들었어요. 농인이 왜 예술 활동을 못 할까 생각해보니 기획회의에 참여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회의에서 소통하는 전문가 대부분이 청인이니 알아들을 수가 없죠. 농인 예술가들의 활동 범위를 늘리려면 수어통역사도 더 늘어야 해요."

-운영이 쉽지 않았을 텐데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나요.

"사실 2018년에 회사를 설립하고 2020년까지 월급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웃음). 직원들 월급 주려면 계속 제가 메꿔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다 보니 심각하게 고민이 됐어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때 '브라이언 펠로우'에 선정이 됐어요."



핸드스피크의 농인 아티스트들과 직원들이 연습실 계약 후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 핸드스피크]

브라이언 펠로우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설립한 공익재단 브라이언임팩트가 운영하는 사업이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혁신가들이 온전히 몰두할 수 있게 매월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꽤 도움이 됐겠네요.

"혁신가들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이 와 닿았어요. 제가 혁신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티스트들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뻤죠."

-어떤 약속인가요.

"인생에서 내 손 놓지 않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외롭지 않다는 게 제 철학이거든요. 핸드스피크를 시작하면서 함께 해준 동생들에게 절대로 손을 놓지 않는 언니가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치열하게 버텼던 거고요. 펠로우가 돼서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인정의 박수를 받기 위해

-소속 아티스트가 몇 명인가요

"예비 아티스트까지 포함해 70명 정도예요. 퍼포먼스·연기·영상·디자인·에세이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크네요.

"해외를 가 봐도 이렇게 하는 곳이 없어요. 올해 미국에도 다녀왔는데 오랜 역사를 지닌 농인 극단인데도 소속 아티스트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해외에서도 신기해하겠어요.

"소속 아티스트가 많다는 것도 신기해하지만, 실력을 보고 더 깜짝 놀랍니다.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실력을 키웠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실력 차이가 큰가요.

"'간절함'이 다르다고 할까요. 한국은 농인 아티스트를 위한 제도나 지원이 해외보다 한참 부족해요. 연습실 빌릴 돈이 없어서 다리 밑에서 연습한 적도 많아요. 게다가 저희는 케이팝 댄스의 칼박자, 단체 군무, 이런 걸 계속 봐왔잖아요. 그게 기준이 되다 보니 정말 열심히 연습해요. 반면 해외 농인 댄서들은 느낌대로 추더라고요(웃음)."

-유명 댄스 스튜디오인 '원밀리언'과 협업한 뮤직비디오를 봤어요. 밀리지 않던데요.

"농인 댄서가 춤을 추려면 박자를 하나하나 쪼개 몸에 익혀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음악을 익히면서 박자를 찾고 수어도 넣고 서로 맞추기까지 해야 하니까요. 청인 댄서가 3~4일이면 하는 안무를 농인은 석 달씩 걸리기도 해요. 좋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몇 배는 더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하죠. 농인 배우들도 마찬가지고요."

-배우들도 실력이 뛰어나겠지요.

"2년 전에 박지영 배우가 백상예술대상 연기상 후보에 오른 적이 있어요. 농인 배우 최초였죠. 전화로 소식을 듣고 엉엉 울면서 연습실로 달려가 지영이에게 알려줬어요. 상을 받진 못했지만,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그간의 고생과 노력을 보상받은 기분이었어요."

같은 마음인 사람

핸드스피크는 지난해 브라이언임팩트의 '임팩트그라운드' 사업에 선정돼 3억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사회혁신조직이 규모를 키울 수 있게 사용처에 제한이 없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일종의 '신뢰자본'이다.

"저희에게는 연습실이 절실했어요. 브라이언임팩트에 연습실 임대료로 3억원을 쓰고 싶다고 말은 했지만 안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도 흔쾌히 동의해 줬어요."

-그 전엔 어떻게 연습했나요.

"떠돌이 생활이었죠. 연습이 꽤 많았는데 할 때마다 장소를 공지해가며 옮겨 다녔어요. 다 같이 연습할 큰 공간을 구하는 게 어려워 쪼개져서 연습하는 일도 많았어요. 연습실이 대부분 지하라 걱정되는 점들도 있었어요. 건물에 불이 날 수도 있고 밖에 비가 갑자기 많이 올 수도 있는데 지하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소리까지 들을 수 없으니 농인들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지상 3층으로 올라왔군요. 연습실이 생긴 뒤에는 어떤 게 달라졌나요.

"예전에는 뮤직비디오 하나 만드는 데 6개월, 뮤지컬은 1년 걸렸는데 지금은 뮤직비디오는 한 달 반, 뮤지컬은 3개월 만에 완성이 됩니다. 한 장소에서 연습하고 수정하고 회의까지 할 수 있어서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줄었어요. 공간이 있다는 이유로 핸드스피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어요. 정부와 기업에서도 협업을 제안하는 일이 많아져 수익도 늘었습니다. 지속가능성이 생겼죠."

최근에는 기부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카카오같이가치 '매달기부'에서 핸드스피크 모금함을 보고 연락했다며 500만원을 기부하겠다고 했다. "카카오임팩트에서 연결해준 덕에 매달기부에 정기 모금함을 개설할 수 있었고, 온라인 기부자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정정윤 대표는 인터뷰 내내 많이 웃었다. 운 건 딱 한 번. 이 말을 하면서다.

"믿음이란 '마음이 같다'는 뜻이 아닐까요.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마음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저는 행운아인 것 같아요."

김시원 더버터 기자